

인쇄용지 공급 심상치 않다

잇따른 가격 인상 물량 부족으로 인쇄업계 주름 깊어진다

인쇄용지 가격이 한 해 두 차례나 인상되는 가운데 물량마저 부족현상을 보여 가격이나 수익구조 악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인쇄업계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 인쇄용지 업체들은 올해만 들어 5%대의 가격인상을 2차례나 단행했다. 계속되는 유가 폭등과 펄프를 비롯한 주요 원자재의 가격 상승에 따른 마진축소를 더 이상 감당해 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계성제지의 연산 8만톤 규모 오산공장 폐쇄, 이엔페이퍼의 진주공장 일부 폐쇄 등으로 인쇄용지 초과공급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가격 인상을 위한 좋은 조건이 형성됐다는 것도 한 원인이 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국내 유일의 펄프 제작업체인 동해펄프 공장의 장기파업으로 인한 가동중단 사태 등의 영향으로 펄프 공급량이 10% 이상 감소, 인쇄용지 물량 부족 현상까지 불려와 인쇄업계는 연말 성수기의 한가운데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펄프가격변동>

자료 : paperloop.com, 무림페이퍼

	06.10	11	12	07.1	2	3	4	5	6	7	8	9
NBSK	770	770	790	790	790	790	810	810	810	830	850	850
SBSK	670	690	690	690	690	690	690	690	710	710	730	750
유칼리투스	695	715	715	715	715	715	715	715	735	735	755	775

<인쇄용지 수급실적>

(단위 : M/T)

연도	생산	출하			재고
		내수	수출	계	
2002	2,294,740	1,345,800	926,488	2,272,288	116,345
2003	2,310,773	1,292,637	1,006,614	2,299,251	127,867
2004	2,474,338	1,336,717	1,120,383	2,457,100	145,105
2005	3,043,298	1,887,600	1,140,170	3,027,770	194,242
2006	3,093,532	1,941,143	1,126,239	3,067,382	220,392
'06.9	2,317,927	1,435,277	843,754	2,279,031	233,138
'07.9	2,305,861	1,450,917	875,915	2,326,832	204,168
전년동기대비	-0.5%	1.1%	3.8%	2.1%	-12.4%

자료 : 한국제지공업연합회

<아트지류 수급실적>

(단위 : M/T)

연도	생산	출하			재고
		내수	수출	계	
2002	1,547,840	620,991	923,086	1,544,077	65,921
2003	1,634,150	618,751	1,000,801	1,619,552	80,519
2004	1,770,692	664,396	1,907,936	1,762,332	88,879
2005	1,954,602	860,371	1,091,818	1,952,189	97,449
2006	1,930,307	855,374	1,063,025	1,918,399	109,357
'06.9	1,443,276	633,882	803,922	1,437,804	102,921
'07.9	1,369,168	579,625	813,759	1,393,384	80,157
전년동기대비	-5.1%	-8.6%	1.2%	-3.1%	-22.1%

자료 : 한국제지공업연합회

미뤄왔던 펄프가격 인상분 반영

인쇄용지업계가 가격인상의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는 펄프가격은 실제로 2006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1년 동안 NBSK, SBHK, 유칼리투스가 각각 10.4%, 11.9%, 11.5% 상승했다. 이와 관련 SK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펄프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지금의 국제펄프가격 상승기조는 가격인상을 위한 국제펄프 메이저 제조업체들의 공급량 조절을 통해 이뤄졌던 2001년 전후와 달리 원유, 광물 등의 수요 증가와 동반한 실질적인 수요 증가에 의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증가분에 충족할 공급량 확대나 수요증가세 자체가 완화되지 않는 이상 단기적으로 펄프가격이 안정되기는 힘들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은 펄프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제지업체에게는 상당히 큰 타격을 줬다. 결국, 인쇄용지 가격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동안 일정 정도 유지되던 재고량마저 줄어드는 결과로 나타났다. 한국제지공업연합회가 집계한 지난 9월말 기준, 인쇄용지 및 아트지류의 재고량은 전년 대비 각각 12.4%, 22.1% 감소했다.

물량 부족으로 이중고 시름

인쇄용지의 가격인상은 유통구조의 특성상 제지사들이 유통업체에 가격인상을 통보하면 이를 유통업체들이 수용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런데 올해는 인쇄용지 업체들의 구조조정 효과로 고질적인 공급과잉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됐기에 어느 때보다 쉽게 시장에 반영됐다. 제지업계는 지난 2002년 이후 국내 인쇄용지업계의 공급 과잉은 연평균 25만톤을 웃돌았지만 올해의 초과 공급 규모는 10만톤 미만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고질적인 공급과잉 문제 때문에 지난 수년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온 펄프 가격 인상분이 제품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던 것을 비로소 실현한다는 반응이다. 문제는 인쇄용지가격의 인상이 올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고 인쇄용지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공급량 부족현상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대선을 맞아 평년보다 많은 인쇄물량이 시장에 공급될 2007년 12월 인쇄업계에서는 특수는 고사하고 가격인상과 물량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갑준 차장 kjcho@print.or.kr